

12월 11일(월) / 사5-8장

▶**내용요약:** 이사야 5장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 기대했던 열매를 맺지 못한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다. 6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이에 순종하며 보내달라고 결단한다. 심판 중에도 기록한 씨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보존시킨다는 소망을 주신다. 7장은 아하스 왕의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만 심길 것을 말씀하신다. 메시아 탄생을 위한 예언이 기록된다. 8장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기다릴 것을 권면하신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이라 하리라”(7장)

▶**생각하기:**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자신의 구원사역을 잊지 않으신다.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계속 지적하며 심판을 말씀하시는 중에서도 나무가 베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거룩한 씨**를 남기리라는 소망을 주신다. 혹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의 소망**을 버리지 말자!

12월 14일(목) / 사17-20장

▶**내용요약:** 17장은 다메섹과 이스라엘에 멸망과 함께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을 예언한다. 18장은 앗수르와 구스의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두 나라는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을 치려했지만 하나님이 앗수르를 멸망시킴으로 그 계획을 좌절시킨다. 19장은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중국에 애굽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을 말한다. 20장은 애굽과 구스에 대한 예언으로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그들의 최후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경고한다.

▶**질문:**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과 구스에 대한 예표로써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몇 년을 다녔는가?(20장)

▶**생각하기:**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압제하던 앗수르를 견제하고자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과 발로 다니므로 그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한다. 이스라엘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애굽과 구스를 의지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가?**

12월 17일(주일) / 사29-32장

▶**내용요약:** 29장에서 예루살렘은 아리엘(불타는 제단)같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일 것을 예언한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치는 대적들은 멸망당하며 예루살렘은 구원을 받게 된다. 이어 이스라엘의 죄악이 기록되는데 회피, 위선, 거역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원받는다. 30장은 이스라엘이 애굽과의 동맹을 의지하나 그 약속이 헛됨을 지적하며 유다의 범죄를 말씀하지만 그들이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31장은 애굽을

12월 12일(화) / 사9-12장

▶**내용요약:** 9장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도래와 그 시대를 예언한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도 말씀한다. 10장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앗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 그들의 교만과 횡포로 인해 심판의 대상임을 알려준다. 11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살림이 임하며 남은 백성이 돌아올 것임을 말한다. 12장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기록된다.

▶**질문:** 하나님이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뭉둥이는 내 분노라고 표현한 민족은?(10장)

▶**생각하기:** 9장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의 빛으로 보내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할 것을 예언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9:7)고 하신다. 현재는 빛 한줄기 비추지 않는 암흑과 같은 절망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선하신 뜻을 확신하게 된다. 하나님의 열심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

12월 15일(금) / 사21-24장

▶**내용요약:** 21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함께 두마와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온다. 22장은 환상의 골짜기로 표현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로 유다의 불신앙과 멸망을 선포한다. 23장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멸망과 70년 후 회복에 대해 예언한다. 24장은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것과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심판의 말씀으로 인해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질문:** 히스기야의 궁내대신으로 국고와 왕궁을 맡은 사람은 누구인가?(23장)

▶**생각하기:**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하나님이요, 심판주임을 드러내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 뿐 아니라 여러 나라들, 앗수르, 바벨론, 애굽, 아라비아의 운명에 대해 말씀하신다.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나 신앙의 영역에서 뿐 아니라 직장과 학교생활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말한다.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새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묘사한다. 32장은 의로 통치할 왕에 대해 소개하면서 메시아 왕국의 의와 공평함을 드러낸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공의의 열매가 맺히고 믿는 자들의 구원이 성취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을 보호할 것이라”(31장)

12월 13일(수) / 사13-16장

▶**내용요약:** 13장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휘하는 군대가 바벨론을 공격하여 황폐하게 만들 것을 예언한다. 14장은 이스라엘이 포로생활에서 돌아올 것과 바벨론 왕은 스올로 내려가게 되고 결국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신다. 이어 앗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심판도 기록된다. 15장과 16장은 하나님이 모압의 교만으로 심판하실 것과 그들이 통곡하고 근심하게 될 것을 말한다.

▶**질문:**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면서 몇 년 안에 모압의 영화가 쇠하고 그 무리가 능욕당할 것이라고 하는가?(16장)

▶**생각하기:** 하나님은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함께 블레셋의 심판도 말씀하신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14:29).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절대강자인 바벨론이 멸망하면 자신들이 잘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던 블레셋도 함께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신다.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12월 16일(토) / 사25-28장

▶**내용요약:** 25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거룩한 산에 잔치를 베풀고 자기 백성을 위로하실 것을 예언한다. 26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한다. 원수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강조된다. 27장은 포도원지기 되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드러내며 마지막 때 자기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산에 불러 모을 것을 말한다. 28장은 에브라임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이어 유다의 죄악과 형벌이 기록되나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마쳐진다.

▶**질문:** 어떤 약기를 붙면 그 때 앗수르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가?(27장)

▶**생각하기:** 이사야서는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나라를 예언하면서 임마누엘에 대해 기록하기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신다”(28:6)고 한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의 학업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생각하기:** 30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지은 죄로 인해 여러 고난을 당하지만 회복될 것을 예언하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매를 고치신다**”(30:26)고 한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자초한 고난과 상처임에도 하나님은 그 상처를 싸매고 맞은 매를 고치시는 분이시다.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살아간다!**